

경쟁교육제로 캠페인 2023

경쟁교육과 헤어질 결심



"시험 하나 제대로 못 보면서 바퀴벌레처럼 한 살 더 먹은 것 같아서...
빛을 웅덩이여 한참 주그러 앉아 울었어요."

대입이 달라져야 교육이 바뀝니다.

꿈을 키우는 배움! 친구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는 학교 생활!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 2023년 고입 결과에 따른 교육격차 분석 보도자료(2023.10.06.)

영재학교 합격자 10명 중 7명이 수도권 출신, 교육격차만 남긴 영재교육의 민낯

지난 5월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사교육걱정)은 출신지역에 따른 대학 입시 교육격차를 분석하였고,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https://bit.ly/3RRyLcm>). 서울대 및 전국의대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이 강남3구 출신이었다는 결과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입시 단계에서도 교육격차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가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은 교육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았고, 세부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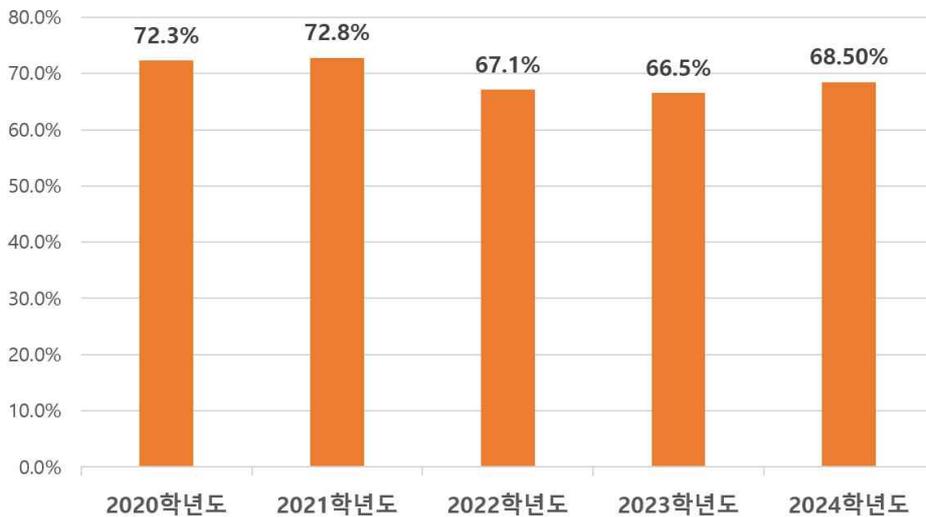
먼저 살펴볼 것은 '전국 영재학교 신입생들의 출신지역'입니다. 2024학년도 합격자 820명 중 564명이 수도권 출신이었습니다. 그 비율이 무려 68.5%에 달합니다.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의 경우 해당 지역 학생은 정원의 25%에 불과했지만, 수도권 출신은 40.4%, 38%에 달했습니다. 거점별로 영재학교가 존재하는 것은 각 지역의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현재와 같은 수도권 출신의 쏠림현상은 지역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서 교육부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선발 비율을 학교장 자율에 맡겨 버림으로써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광주과학고처럼 지역인재 선발을 50% 이상 의무화하는 등 실제적인 정책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앞선 두 학교의 경우에 23학년도 대입에서 줄

업자의 16.12%, 18.18%가 의·약학계열에 진학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이공계 인재 양성이란 설립 목적을 벗어나, 여러 측면에서 학교의 설립취지가 무색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표1: 2024학년도 영재학교 합격(예정)자 출신중학교 지역 현황>

연번	시도	한국과학 영재학교	서울 과학고	경기 과학고	대구 과학고	광주 과학고	대전 과학고	세종과학예술 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 영재학교	합계
1	서울	31	100	29	20	5	39	29	23	276
2	부산	25	2	2	17	-	-	2	-	48
3	대구	1	-	-	24	-	-	-	-	25
4	인천	6	2	3	3	7	-	1	32	54
5	광주	-	-	-	-	45	-	-	-	45
6	대전	5	2	1	1	1	24	7	2	43
7	울산	2	1	-	2	-	-	-	-	5
8	세종	1	-	-	-	-	-	20	-	21
9	경기	35	12	86	15	23	24	20	18	233
10	강원	1	-	-	-	-	-	1	-	2
11	충북	2	1	-	-	-	2	1	-	6
12	충남	4	2	-	-	1	2	5	1	15
13	전북	-	2	1	1	2	1	-	-	7
14	전남	-	-	1	-	6	-	-	-	7
15	경북	2	1	-	3	-	-	-	-	6
16	경남	6	2	-	8	1	1	1	2	21
17	제주	2	1	-	-	1	-	1	1	6
계		123	128	123	94	92	93	88	79	820

<그림1: 연도별 영재학교 입학생의 수도권 출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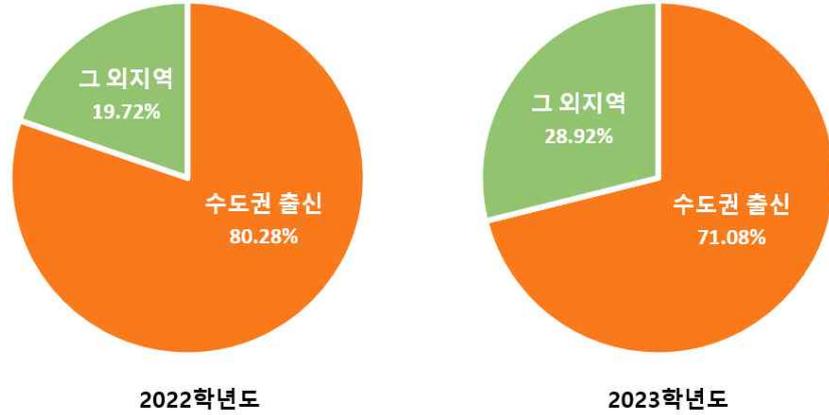
※ 자료: 강득구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2~2023학년도 영재학교·과학고 의·약학계열 진학자 비율’은 그 심각성과 불법성에 관해 또 다른 경각심을 줍니다. 2023학년도 의·약학계열 진학자 83명 중 수도권 출신이 무려 59명이었습니다. 71.08%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2022학년도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71명 가운데 57명이 수도권 출신이었습니다. 80.28%라는 비정상적인 수치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를 넘어, 특히 수도권 출신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영재학교와 과학고가 결국 의·약학계열로 진학을 위해 악용되고 있음을 직시하게 합니다. 때문에 교육부는 현 세대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에 임하고, 실제적인 제도 개선을 수행해야 합니다.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예로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의·약학계열을 지원하기만 해도 징계 및 졸업을 유예하는 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의·약학계열 이탈을 막고 설립목적 이행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교육부의 개선 의지가 요구되는 지점입니다.

<표2: 2022~2023학년도 영재학교·과학고 의·약학계열 진학자의 출신 지역 현황>

연번	시도	한국과학영재학교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구과학고		광주과학고		대전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합계	
		'22 대입	'23 대입	'22 대입	'23 대입	'22 대입	'23 대입	'22 대입	'23 대입	'22 대입	'23 대입	'22 대입	'23 대입	'22 대입	'23 대입	'22 대입	'23 대입	'22 대입	'23 대입
1	서울	-	-	21	24	7	5	3	-	2	-	7	6	5	3	1	-	46	38
2	부산	-	-	-	-	-	-	3	2	-	-	-	-	-	1	-	-	3	3
3	대구	-	-	-	-	-	-	5	7	-	-	-	-	-	-	-	-	5	7
4	인천	-	-	-	1	-	-	-	-	-	-	-	1	-	-	-	-	0	2
5	광주	-	-	-	-	-	-	-	-	-	-	-	-	-	-	-	-	0	0
6	대전	-	-	-	1	1	-	-	1	-	-	3	3	1	1	-	-	5	6
7	울산	-	-	-	-	-	-	-	1	-	-	-	-	-	-	-	-	0	1
8	세종	-	-	-	-	-	-	-	-	-	1	-	1	-	1	-	-	0	3
9	경기	-	-	3	2	4	8	-	3	2	-	-	3	1	1	1	2	11	19
10	강원	-	-	-	-	-	-	-	-	1	-	-	-	-	-	-	-	1	0
11	충북	-	-	-	-	-	-	-	-	-	-	-	-	-	-	-	-	0	0
12	충남	-	-	-	-	-	-	-	-	-	-	-	1	-	-	-	-	0	1
13	전북	-	-	-	-	-	-	-	-	-	-	-	1	-	-	-	-	0	1
14	전남	-	-	-	1	-	-	-	-	-	-	-	-	-	-	-	-	0	1
15	경북	-	-	-	-	-	-	-	-	-	-	-	-	-	-	-	-	0	0
16	경남	-	-	-	-	-	-	-	1	-	-	-	-	-	-	-	-	0	1
17	제주	-	-	-	-	-	-	-	-	-	-	-	-	-	-	-	-	0	0
계		0	0	24	29	12	13	11	15	5	1	10	16	7	7	2	2	71	83

<그림2: 2022~2023학년도 영재학교·과학고 의·약학계열 진학자의 출신 지역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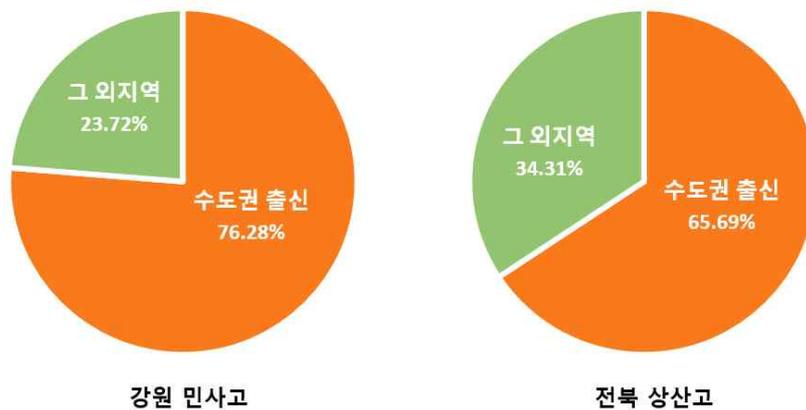
※자료: 강득구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련 경향은 일부 전국단위자사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민사고와 상산고의 경우 강원도와 전라북도에 소재한 학교임에도 학생의 70% 가까이는 수도권 출신들이었습니다. 2023학년도의 경우 민사고 신입생 156명 중에 119명이, 상산고 신입생 344명 중에 226명이 수도권 출신이었는데 총 정원의 76.28%와 65.69%를 차지했습니다.

<표3: 최근 3년 간(2021~2023) 전국단위 자사고(민사고, 상산고) 입학생 출신 중학교 지역>

시도	학교명	연도	출신 중학교 해당 지역별 인원(명)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강원	민사고	2021	71	7	3	3	0	8	2	1	5	43	0	1	1	1	1	1	1	8	157
강원	민사고	2022	79	6	1	0	4	5	2	1	7	37	0	0	4	1	1	1	3	1	153
강원	민사고	2023	70	1	2	3	3	10	5	0	8	46	0	0	1	1	0	2	0	4	156
전북	상산고	2021	126	5	0	2	12	23	2	11	3	101	3	1	74	1	1	3	2	0	370
전북	상산고	2022	134	4	0	0	3	29	1	3	1	91	0	1	67	4	0	5	1	0	344
전북	상산고	2023	128	2	0	4	9	24	1	11	1	94	0	0	63	4	0	2	1	0	344

<그림3: 2023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민사고, 상산고) 입학생 출신 지역 비율>



※자료: 강득구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처럼 영재학교와 과학고, 그리고 전국단위 자사고의 사례가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를 보여준다면, ‘서울소재 외고·국제고 입학생의 출신중학교 지역별 현황’은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경제력 격차에 따라, 사교육 격차에 따라 고교 진학 격차가 발생함을 확인시켜 줍니다. 2023학년도 서울소재 외국어고·국제고 신입생 1486명을 살펴보면, 강남 3구 학생들이 321명으로 정원의 2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교육특구인 노원구·양천구까지 포함하면 무려 40%(593명, 39.9%) 가까운 비중으로 사교육특구 지역 출신들이 외고·국제고를 선점하는 실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연 고교 다양화 정책이 본연의 취지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진정 보장해 주는 정책인지, 따져 물어야 합니다.

<표4: 2023학년도 서울소재 외국어고, 국제고 입학생 출신 중학교 지역별 현황>

학교명	출신 중학교 해당 지역별 인원(명)						비고
	강남3구	노원구	양천구	그 외 지역	해외	기타	
대원외고	112	7	2	116	1	8	검정(1), 경기(6)(서울삼육4, 청심국제중2) 광주(1)
대일외고	10	46	1	182	0	7	경기(3), 광주(3), 세종(1)
명덕외고	11	5	73	149	10	4	검정(4)
서울외고	6	99	1	109	0	5	검정(3), 경기(1), 광주(1)
이화외고	23	1	18	88	0	3	검정(3)
한영외고	137	2	0	99	0	0	
서울국제고	22	12	5	92	1	19	검정(7), 타시도(12)
합계	321	172	100	835	12	46	1486

이제는 점점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학에서도 고교에서도 대한민국 교육격차는 나날이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국민들에게 교육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수도권으로 옮기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교육과정 다양화’라는 미명아래 도입된 고교다양화 정책이 오히려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병폐가 되었습니다.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는 목적은 고교학점제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누려야 할 교육적 가치입니다. 현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고교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고교의 종류 및 정책의 개폐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교육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며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고교체제를 단순화하면서도 그 유형과 종류를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애 나서야 합

니다. 사교육걱정은 정부와 국회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과 고통을 인식하여 수직적 교
교서열화와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는 일에 앞장설 때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3. 10. 6.

국회의원 강득구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장승진(02-797-4044/내선번호 506)